

[컨퍼런스 요약]

지구보건 컨퍼런스: 기후위기와 인도적 지원

2022년 4월 22일(금)

[개회사]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ins)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에서 언급했듯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자연 기후 변동성을 넘어 자연과 사람에게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치고 이에 연관된 손실과 피해를 가져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가장 중대한 의료 및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왔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은 대부분 기후에 가장 취약하며, 국경없는의사회는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로 인한 의료 및 인도적 영향을 인지하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지구 보건'이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보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영양실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질병 패턴의 변화 등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의료 필요를 급증시키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또한 기존의 취약성과 식량 불안정, 폭력과 실항 등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기후위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고, 비정부기구와 국제 및 국가 기관의 전문가가 모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후위기는 지구의 미래와 전 세계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위협이다. 더 큰 고통을 막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축사]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 제 8대 유엔 사무총장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컨퍼런스를 통해 '지구 보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지구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쳤는데, 자연 파괴와 같은 인간의 활동과 미래의 새로운 전염병 증가 사이의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공중보건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후위기와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 증가가 인간 활동의 결과이며 많은 인도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해결책과 대응에 대한 논의에 '지구 보건'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장 취약한 인구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의 영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컨퍼런스가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 단체와 다른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동하며 기후위기의 영향에 어떻게 가장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유용한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1부] 기후위기와 인도적 지원 활동

좌장: 최용상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주제 발표 1. 탄소중립을 향한 행동의 10년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이 된 2015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 의미 깊은 해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점, 그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라는 점,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산불, 홍수, 태풍, 한파 등 큰 규모와 잦은 빈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인간과 동식물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곧 인도적 위기와 직결된다.

작년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각국 정부 대표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함께한 참여적이고 총체적인 논의였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20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45%로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IPCC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다. 이외 개도국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의무 등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기여할 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이후 기타 기후변화 논의체가 구성되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등 CO26를 계기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국가지만, NDC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으로 중단되거나 후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100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1.5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류가 직면할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위자가 협력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 발표 2. 지구보건: 기후위기가 취약계층과 인도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Planetary Health: Climate Consequences, Impact on Vulnerable Population, and Humanitarian Response)

마리아 구에바라 국경없는의사회 국제본부 국제 의료지원 총책임자

국경없는의사회는 1998년 지구의 날을 시작으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영역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시작했다. 인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화두는 '지구보건'인데, 이는 인간이 초래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그 결과로 초래되는 공중보건의 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가 공중보건에 끼치는 영향에는 수인성 질병의 증가, 기아 등 식량 안보, 매개체 감염 질병, 호흡기 질환 증가, 기상이변 강도와 빈도 증가, 분쟁과 난민 발생 등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대응력이 취약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변화는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해당 인구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운영 차원	단기 및 장기적 결과 도출을 통한 적응(Adaptation) 및 교육(Education) 예측에 집중해서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탄소 발자국 저감 조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배출량 50프로 감축.

3 pillared action



[토론]

최용상 교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이 우선인가, 기후위기 피해 인구 지원이 우선인가?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나?

김효은 대사: 어렵지만 동시에 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원과 기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2100년까지 1.5도 이내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더 큰 피해를 많은 받는 계층은 최빈국의 여성과 아동, 1차 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개도국은 안타깝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도국 지원은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논의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원,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 보호가 늦어지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다.

구에바라 총책임자: 적응과 완화 노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질병의 예방/치료와 같다. 평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지원에 있어 어떤 해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활동에 있어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취약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현장에서 배운 것을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다른 행위자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활동에 있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경감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적응 활동이 곧 완화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최용상 교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김효은 대사: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개인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양의 40-70%가 개인의 생활방식 변화를 통해서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개인이 목소리를 높여야 기업도, 정부도 변화한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며,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야 새로운 기업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개인이 생활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정부가 친환경적인 정책을 만들고 기업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구에바라 총책임자: 지구보건에 있어 우리의 행동, 행동의 변화가 핵심이다. 우리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참관 자격(observer)으로 처음 참여한 COP26에서 많은 지역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의료 부문의 목소리 또한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하며, 행동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용상 교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있어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

구에바라 총책임자: 스스로에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전염병 등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나 영양실조, 재해의 패턴 변화 등을 목격하고 있다. 기존의 인도적 위기는 더욱 복합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각 문제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던 기존의 영역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까지 대응 영역을 넓혔다. 코로나19 대응이 한 예이다. 앞으로 위기는 전세계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위기를 바라볼 때 기후위기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말라리아 발병 패턴 변화, 매개체의 서식 변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예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러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용상 교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김효은 대사: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는 1950년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기반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것이고,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경제성장의 기반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으나 문제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과거의 책임의 문제 보다는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동의 책임이 있고,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도국을 위한 기술과 자원, 역량 배양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것인지가 국제 논의의 핵심이다. 기후변화 대응이야말로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하고, 이미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최용상 교수: COP26에서 논의된 개도국을 위한 자금지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은 잘 참여하고 있는가?

김효은 대사: 2020년부터 연간 1,000억불 기후자금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위한 지원으로 흘러가도록 약속되어 있으나 현재 연간 800억불로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대응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이 발 벗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각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 지원을 약속 및 이행하고 있으며, 그린 공적무상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도국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용상 교수: 기후변화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대응이나 완화 활동보다 인식제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에바라 총책임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제고는 세 가지 중요한 축 중 하나이다. 어제의 위기가 강도나 빈도가 오늘 목격하는 것과 다르며 우리는 이미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식 제고를 통해 다른 단체도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석과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보건의 관점이 중요하며, 함께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가며, 협업해 대응해 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저감, 적응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 및 발전 방향

좌장: 김태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 인도적 지원 총괄 협력관

주제 발표 1. 국경없는의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The Adaptation of Medical Response in Climate Emergency)

모니카 룰 국경없는의사회 제네바 운영센터 의료지원 국장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영양실조, 콜레라,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 발병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의료보건 및 인도적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제르에서의 말라리아와 온두라스에서의 뎅기열과 같이 모기로 전염되는 벡터매개 전염병 발병 증가는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소말리아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방면에서 극심한 인도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실조 위기를 겪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 발생, 가뭄 및 홍수로 인해 거처를 잃은 실향민/난민 증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감(mitigation), 적응(adaptation), 교육(education) 세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구호물품 운송에 있어서도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품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수단에서 강수량 변화와 말라리아 발병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질병 발병 패턴을 예측하고, 잠재적 전염병 발병 지역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주제 발표 2. 기후변화와 인도적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 DRR/CCA 사업을 중심으로
(Climate Change and Humanitarian Aid: Focusing on Save the Children Vietnam DRR/CCA Project)
이지선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기후위기대응팀 매니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베트남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까마우성에서 재난위험경감(DRR-Disaster Risk Reduction) 및 기후변화 대응(CCA-climate change adaptation) 사업을 실시했다. 2019 INFORM Risk Index에 의하면 베트남은 전체 191개 나라 중 91위에 위치할 정도로 홍수에 취약하며, 낮은 지대와 긴 해안선으로 인해 사이클론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지대인 메콩강 유역은 염수 침입, 가뭄, 홍수, 사이클론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자원, 생태계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코이카와 협업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재난위험경감과 인도적 지원 성격의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됐고, 2018년부터는 GCF(Green Climate Fund)와 협업하여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한 개발중심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전환됐다. 재난위기 경감과 식수위생증진 중심의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학교 기반의 사업과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2020년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구에 생계지원을 하여 회복력을 강화했다. 까마우 성 지역주민의 약 40%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장기화된 홍수나 우기와 같은 기후변화에 더해 코로나19로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은 이러한 취약 계층 생계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구의 회복탄력성이 증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 각 사업을 단기적으로 진행해 기간별 사업 지역이 달라 전체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화장실이나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과 같은 생활 위생

인식 개선은 위생 교육,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 위생과 관련된 문화적 한계점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인식 및 행정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주민의 인식 개선에는 오랜 시간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을 기획해 사업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사업의 경우, 이전에 기후위기로 인해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기획한 사업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까지 면밀히 살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 발표 3. 기후위기 솔루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브루노 조콤 기후행동액셀러레이터 설립자 & 사무총장**

기후행동액셀러레이터는 비영리 단체로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지원 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대응 솔루션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재 기관의 탄소배출 상황에 대한 진실성(integrity),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determination)와 자원 조달, 그리고 조직의 운영 가치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파트너 기관 중 의료 지원 단체인 세계의료활동연합(ALIMA: Alliance for International Medical Action)와 함께 진행한 탄소배출 저감 솔루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2020년 ALIMA의 탄소배출량은 6,000만 유로에 달하는 규모로 중소기업에서 배출하는 규모에 달했다. 배출량 중 40퍼센트는 운송 및 물류 공급에서 비롯됐음을 파악했고, 이를 위해 탄소배출을 85%까지 줄일 수 있는 5가지 솔루션을 제공했다. 1) 항공 운송을 줄이고, 2) 해상 운송 비중을 늘리며, 3) 현장에서 차량 물품 운송 방식 전환, 4) 구호 물품에 친환경 기준 수립, 그리고 5)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기후행동액셀러레이터의 최종 활동 목표는 인도적 지원 기관들이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의 기준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 더 많은 파트너가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3) 보다 다양한 섹터에 적합한 톨이 개발되고, 4) 탄소배출 저감에 보다 다양한 섹터-정부,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

김태은 협력관: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체험한 경험이 있나?

모니카 를 국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기후위기와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는 것은 어렵다. 위기는 항상 있었지만 더욱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여러가지 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후위기가 더해진 것이다. 몇 년 전 모잠비크에서 두 번의 사이클론이 발생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이어 콜레라도 발병했다. 이들은 이미 결핵 및 다른 질병, 재정난 등 여러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던 인구였다. 거처, 식수 접근성, 위생, 콜레라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지선 매니저: 모든 사업에 있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국의 담당자로서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중 홍수로 산사태가 일어나 이동진료를 나갈 수 없는 경우, 어떤 지역에서 산모나 아동이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지고 길어지는 경우, 우기나 건기가 달라지며 홍수나 가뭄이 발생에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 기획이나 실행에 있어 예산배분 및 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이클론이나 태풍에 대응했던 곳에서 가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다양한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빠른 속도의, 다른 접근의 대응이 필요하다.

브루노 조콰 사무총장: 특정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지 현상 뒤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점차 환경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열대 지역에서 심각하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 지난 100년간 기온이 1.5-2도 상승했고, 2050년까지 2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폭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김태은 협력관: 수인성 질병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접근은 무엇이 있나? 위생 교육 외 어떤 대응이 있나.

모니카 롤 국장: 수인성 질병이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수인성 질병에는 만병통치약이 없고, 백신도 없는 경우가 많다.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 질병 발생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적절한 식수와 위생이 제공되는 것이다.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수인성질병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등 위생 교육이 중요하다. 빗물을 정화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등 가구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예방접종도 물론 중요하다.

김태은 협력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진행된 사항은 없는지.

이지선 매니저: 지역이 기후위기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사업 지역에는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환경 전문가, 분야 전문가(생계지원, 농업 등)로 이루어진 컨설팅팀을 꾸려 연구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대상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외부 전문 기관이나 대학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김태은 협력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단체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력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브루노 조콤 사무총장: 자금 원조와 프로그램 정책, 지식 공유의 측면이 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곳에 병목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해결이 필요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진행하고 있다. 각 단체와 기업이 탄소 배출 저감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도미노 효과를 이뤄야 한다. 여러 사회 구성원에 모범이 될 만한 행동, 참고할 만한 사례가 나와야 한다. 정책도 영향을 받아야 하고, 실제 이행계획 또한 중요하다. 모든 주체가 협업해야 한다.

김태은 협력관: 국경없는의사회는 기후위기 외에도 많은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을 텐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나?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모니카 를 국장: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은 주제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쟁의 시점을 넘어 모든 영역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장기적 변화를 위해서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솔루션이 활동에 적용될 것이다.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몇 년 후에 보상이 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재원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필요에 따라서'이다.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분배한다. 3년간의 예산을 예측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 대응에 분배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미지정 후원금도 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민간 후원금 덕분이다. 여러가지 긴급 대응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후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향도 고려해 당장 보이지 않는 필요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태은 협력관: 세이브더칠드런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중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 사업이 있나? HDP 넥서스란 유엔이 주도한 '인도적 위기 대응과 개발, 평화 구축이 연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다.

이지선 매니저: 민관협력 사업으로 우간다 난민 및 호스트 커뮤니티 영유아 임산부 통합 영양증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난민 유입 증가로 호스트 커뮤니티와의 분쟁 발생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를 적용해 난민과 호스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7:3으로 진행하여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을 연계했으며, 단기 지원이 아니라 난민이 지역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개발 요소까지 연계했다.

김태은 협력관: 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동료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브루노 조콤 사무총장: 교육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일부이다. 현재는 여러 교훈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으며, 1차 트레이닝이 올해 말에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서아프리카에서 지역 NGO를 대상으로 알리마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6월, 9-10월 워크숍을 통해 경험 공유, 컨설팅, 지식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네바에서 9월 중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또한 막바지 단계로 5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은 협력관: 우리가 살아가다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 빈곤, 식량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문제를 표면적으로 인식하면 식량 문제는 식량 문제로만, 난민 문제는 정치적이거나 실향의 문제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은 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실제로는 환경과 기후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인도적 위기를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구라는 행성이 겪고 있는 문제, 즉 '지구보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병든 지구에서는 우리도 건강할 수 없다.

[컨퍼런스 다시보기]

유튜브 생중계 링크(한국어): <https://youtu.be/Uc6O5QUN4TY>

유튜브 생중계 링크(영어): <https://youtu.be/Es8c36j5BwE>